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소통과 협력으로 최고의 병원과 대학을 만들자' 2014년 시무식

1월 2일 오전 8시 5층 대강당에서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채석래 일산병원장, 김동일 일산한방병원장, 김민호 일산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갑오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우선 “교직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 덕분에 경상손익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교직원을 치하하고, “올해는 의학계열 대외신인도를 한층 더 높이고, 어려운 의료환경을 정면돌파하자”며 신년인사를 대신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과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보상 ▲효율적 운영 ▲주요 요소의 위험관리방안을 철저히 대비 ▲교육과정의 선진화 등을 올해 주요 목표로 삼았다.

시무식이 끝나고 중강당과 5층 로비에서 조출한 다과를 하면서 갑오년 새해 첫날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각오를 다졌다.



02 러시아 사할린 대표 에이전시 '푸티메드(Putemed)' 방문

러시아 사할린의 대표 에이전시인 푸티메드(Putemed)의 안나 샤로바(Anna Sharova)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푸티메드 대표인 안나 샤로바는 본원 종합검진시설의 최첨단 의료장비 및 국내 단일 과로서 최대 규모인 재활의학과 등을 견학했으며, 종합검진센터의 빠르고 정확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할린의 대표 에이전시인 푸티메드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할린 지역의 외국인환자를 소개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현재 사할린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뛰어난 수술 및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본원이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현지 환우들을 위한 상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약 20여 명의 환우들이 한국 의료관광을 위해 본원을 찾은 바 있다.

국제진료센터는 앞으로도 현지 에이전시들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 의료관광과 동국대학교병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03 지역 병, 의원과 긴밀한 협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진료협력센터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등과 긴밀한 협진 체계 강화를 위해 2013년도 말 현재 340곳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진료협력센터는 현재까지 협약 체결된 병, 의원 248개, 요양병원 19개, 한의원 73개에서 이송되어 오는 환우에게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병, 의원과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04 불교 신도회, 연실회(蓮實會)의 아름다운 자비 나눔

연실회(蓮實會/회장 김길자)는 12월 2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하여 아픈 환우들을 위해 쌀달라며 4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암 투병 중인 환우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길자 회장은 “2002년 연실회 창설 이후 회원들의 지속적인 보시와 도움으로 아픈 환우와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연실회에 축적된 자비 나눔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나눔을 준비하여 어려운 이웃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실회는 아픈 환우 돕기와 불교신행활동을 목적으로 2002년 결성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본원과는 2008년 인연을 맺은 후 아픈 어린이와 환우들을 위해 지난 6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기부를 실천하여 그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05 파주병원, '지역 응급 의료센터' 승격 축하방문

진료협력센터는 12월 19일 응급의료센터 서준석 교수, 최경아 수간호사와 함께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파주 시장과 파주 소방서장, 일산지역 응급의료 센터장 등이 함께하여 파주병원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개소식 행사 후에는 응급센터 등 병원을 둘러보며 향후 응급 환자의 효율적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은 본원과 2006년 5월 협약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연말정산 Tip+

13월의 월급통장,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네 번째 시간 >>>

싱글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싱글직장인은 배우자 공제 및 인적공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대상을 꼼꼼히 체크하여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주거형태(월세) 공제

– 근로자 본인의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주거형태가 '월세'일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총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조건은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15%)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불(체크) 카드(30%)와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 리 미

창무도예전시회 기간 : 1월 6일(월) ~ 1월 18일(토) | 장소 : 1층 전시장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의료지원 협약식 일시 : 1월 9일(목) 09:00 | 장소 : 고양시청 시장실